종교개혁의 역사적 전개

안태환 전도사(피스메이커교회)

1. 중세로마교회의 부패
   핍박의 시대를 지나 교회가 세속권력의 지지를 받으면서 권력과 부를 소유.
   성직을 매매하거나 정치 권력과 야합하는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일어남.

2. 중세로마교회의 유산들
   1)속죄행위: 제물을 바치거나 자기 몸을 혹사시켜고 자신의 죗값을 치르는 것
   2)성인숭배: 속죄행위로도 자신의 죄를 씻기에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의 영적계좌에서 빌려와야 함. 6세기경에 성인 숭배가 아예 기독교 예배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음.
   3)화체설: 사제가 성만찬을 집례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할 때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은 사제를 통해 일어남.

3.종교개혁의 선구자들
   1)존 위클리프(1320-1384): 교황보다 말씀의 권위를 강조, 최초로 영어성경 번역.
   2)얀 후스(1372-1415): 모든 사람이 빵과 함께 포도주를 나누는 '이종성찬'을 주장.
   후스의 유언 "이제 백년 안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실텐데 그가 가져올 종교개혁은 결코 막지 못할 것이다"

4, 마틴 루터(1483-1546)
   - 22살 때 함께 가던 친구가 번개에 맞아 죽으면서 수도사 서원.
   - 평소에 자기 죄문제로 심각하게 고민.
     1510년 로마에 갔다가 사제들의 세속적인 삶의 방식에 충격을 받음.
   - 은사 슈타우비츠의 충고에 따라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롬1:17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됨(이신칭의).
   - 1517년 10월31일 비텐베르크대학 성당 정문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는 95개조 반박문 붙임
   - 3가지 비판: 면죄부 판매, 죄용서에 관한 교황의 권위, 교회의 참된 보화
   - 인쇄술의 발달로 2주에 독일, 4주에 전유럽으로 퍼짐
   - 1518년 10월 12일. 교황청의 로마 소환을 대신하여 카예탄 추기경 만남 / 입장철회 거부
   - 1519년 7월. 라히프찌히 논쟁: 쟁점, 루터가 13번째 논제에서 문제시한 교황의 최고권
   - 1520년 6월 24일. 교황의 교서, 파문예고
   - 1521년 1월 3일. 루터 파문을 당함.
   - 1521년 4월 17일. 보름스 제국의회, 교황의 압력으로 황제 카를5세가 소집.
     결과: 3주내로 비텐베르크로 돌아갈 것, 도중에 설교와 저술활동 금지시킴.
   - 1521년 12월에 시작하여 1522년 9월. 바르트부르크에서 10개월 정도 숨어서 성경을 번역.

5. 슈파이어 제국의회
- 1526년 제1차 슈파이어 제국의회: 지역 영주가 그 지역의 종교를 정하라!
- 1529년 제2차 슈파이어 제국의회: 루터교 인정 철회. 곳곳에서 전쟁 발생.

6.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평화협정(화의): 제후 지역의 지역에는 그 제후의 종교를 따르라!

7. 울리히 츠빙글리(1484-1531)
-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면 츠빙글리는 강해설교로 시작했음.
  1523년 600여명의 청중들 앞에서 최초로 공개적인 가톨릭 교회 논박이 벌어짐.
  성경의 권위를 강조함.
- 루터와 같은 점: 화체설, 성인숭배, 성물에 대한 미신 거부
- 루터와 다른 점: 루터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지 않았으면 교회가 금할 필요가 없다"
- 츠빙글리 "성경이 정확하게 하라고 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 루터보다 과격해서 중세로마교회의 정통적 상징을 없애고 버리고 불태웠다.
- 라틴어 대신 모국어로 성경 본문을 열어서 설교
- 평생의 과제"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로운 교회와 사회를 만들까?"
- 교회와 국가는 하나되어야 한다고 믿음.
- 1522년 취리히 시 의회로 하여금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종교적 관습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시키게 함.
- 1531년에 중세로마교회 도시들의 연합군의 기습으로 전사함.

8. 영국의 종교개혁
1)1534년 영국왕 헨리 8세의 이혼
- 1534년 수장령: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영국 왕이다.
  => 영국국교회 탄생(에피스코팔 교회, 감독교회)

2)에드워즈 6세 섭정 시대
3)블러디 메리, 헨리 8세의 딸
- 1553년 즉위, 중세로마교회로 바로 돌아감.
- 1555년 이단 단속령. 결혼한 사제 2천명 면직, 300명 이상 순교.

4)엘리자베스 1세
- 엘리자베스 조정안: 영국국교회의 정체성으로 확립. 개혁신앙은 고수하나 모든 종교행사나
- 예배 의식은 중세로마교회의 것과 다른 것 없는 혼합주의 교회.
- 1559년 '개정된 지존법'을 발표 => 청교도들이 저항.
- 1593년 예배 참석 거부자들 모두 투옥시킨다는 법 통과.

5)청교도 혁명
- 내전 속에 청교도 지도자 올리버 크롬웰의 철기군이 왕의 군대를 격퇴
- 3년 뒤에 찰스 1세를 처형하고 청교들이 의회를 장악하여 자신들의 개혁을 합법화함.
- 지나친 종교 억압으로 반발심 높아져 영국인들이 찰스2세를 복권시킴.

6)청교도 분리주의자들

- 17세기 초, 제임스 1세의 청교도 핍박이 심할 때 어떤 청교도들은 영국국교회를 떠나 자기들끼리 따로 예배를 드림. = 분리주의자

7)존 윈스럽

- 청교도지만 영국국교회 안에서 개혁하겠다는 사람들의 대표.
- 국국교회의 머리인 왕의 축복을 받으면서 신대륙, 미국으로 이민가기 원함.
  '메사추세츠만 회사'를 설립, 왕의 허락을 받아 1630년 700명과 함께 메사추세츠로 감.
- 자신들을 새 이스라엘로 보고 언약을 잘 지키면 약속의 땅에서 축복받을 것으로 봄.

8)로저 윌리암스

- 로저 윌리암스는 미국 땅의 원주인이 인디언들이지 청교도 이민자들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존 윈스럽과 부딪혔다. 무엇보다도 교회와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확실히 분리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윈스럽은 그를 추방한다. 남쪽으로 내려가 인디언과 함께 살았음.
  정당하게 그들의 땅을 사서 "로드 아일랜드" 세움.

9. 존 칼빈(1509-1564)

- 칼빈은 개신교 신학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사람.
- 1533년 갑작스런 회심 경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순종으로 인도하셨다."
- 1535년 프랑스 정부의 핍박 시작 -> 칼빈 제네바로 피난
- 1536년 기독교 강요 초판 발행. 20년 동안 8번의 개정, 최종본은 4권 80장으로 구성
  "종교적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진정한 영성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지침들"
- 윌리엄 파렐과의 만남, 제네바 안착
- 1538년 4월, 칼빈을 추방함
- 3년 후 칼빈의 친구들이 시의회를 장악하고 그들의 요청으로 1541년 제네바로 돌아옴.

10. 프랑스

- 위그노. 프랑스의 칼빈주의자들
- 1572년 8월24일 결혼식장에서의 대학살
- 1598년 4월 13일 알리 4세, 낭트 칙령: 위그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줌.
- 1685년 루이 14세, 낭트 칙평 폐지: 전 분야의 발달 저해.

11. 네덜란드

- 1565년 높은 세금과 종교 자유 침해를 이유로 스페인의 통치에 반란이 일어남.
- 1609년까지 무력충돌이 계속 되다가 남쪽(벨기에)은 가톨릭으로 남고, 북쪽(네덜란드)는 개신교 영역이 됨.

12.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주도자 칼빈의 제자, 존 녹스(1513-1572).

1560년 가톨릭 지배층과 종교개혁 세력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음.

1525년 스코틀랜드 의회는 루터의 책들을 불법화 했지만 계속 유입되었음.

1528년 스코틀랜드 지도층이 복음주의 설교자 패트릭 해밀턴을 화형시킴

1546년 복음주의자 조지 위샤트와 많은 개신교들을 처형. => 지배층에 대한 불만이 쌓여감.

1547년 8월. 위샤트가 설교할 때 큰 칼을 들고 보초를 서던 녹스. 위샤트 화형당한 후

녹스는 카톨릭 신앙을 지키려는 프랑스군을 상대로 개신교 요새를 지키다 포로가 됨.

1559년 스코틀랜드 내전 발발.

1560년 6월 6일 에든버러 조약. 스코틀랜드에서 개신교가 승리했음을 선포함.

1560년 8월 24일 스코틀랜드 의회가 가톨릭을 불법으로 선포.

1561년 **메리 스튜어트 여왕**이 프랑스에서 돌아옴. '스코틀랜드의 가장 운 나쁜 여왕으로 불림'

카톨릭 국가를 세우고 싶어했지만 녹스를 이기기엔 역부족이어서 붙여준 별명.

=> 1567년 잉글랜드로 망명함

13. 재세례파

- 스위스 형제단은 츠빙글리의 개혁이 너무 보수적이었고 지나치게 점진적이라고 생각함.
- 츠빙글리와 달리 철저하고도 즉각적인 개혁을 주장
-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 어른이 되어 스스로 신앙고백을 하면 다시 세례를 베풀었다.
- 세례 구원의 상징이므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상징하는 침례를 주장
- 교회의 모든 결정은 모든 교인이 함께 해야 한다는 회중교회론을 주장
- 성경은 목사 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에 의해 해석되어야 함
- 교회와 정부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 *츠빙글리의 반박

엡4:5 말씀에는 '세례도 하나'. 즉 세례는 평생 한 번만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 재세례파 이단으로 정죄

- 1525년 1월 시의회가 츠빙글리의 손을 들어줌.
- 1525년 1월 21일 취리히 근교 작은 마을로 가서 재세례파 회중을 이룸.
- 1526년 3월 7일 취리히 시는 재세례 받는 자는 익사시켜 처형할 것을 공포.
  이후에 취리히 근교 재세례파 운동은 근절됨.
- 츠빙글리는 취리히를 확실한 개신교 신학으로 통치함. 모든 시민들은 태어나면 유아세례를 받고 의무적으로 교회를 출석해야 했고 신앙교육을 받아야 했음. 그런데 재세례파들은 유아세례 부정하고 맹세와 병역의무도 부정함. 취리히를 무정부상태로 몰아갔음. 그들은 사회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집단으로 인식되었음.

14.경건주의

종교개혁 이후 100년이 지나면서 무엇이 정통 신학인지 각 교파간에 지나친 교리적인 논쟁이 계속되면서 메마르고 형식적인 예배가 계속됨.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삶에서 사라진 경건한 신앙생활 회복을 위해 독일의 루터교회에서 시작됨.

1)필립 야곱 스페너, 경건주의의 아버지

- 자신의 집에서 경건한 모임을 조직하여 수요일과 주일에 모여 기도함.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논함. 성경 말씀과 경건한 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침.
- 1675년 “경건한 소원” 출간.

2)어거스트 헤르만 프랑케(August Hermann Francke)

- 독실한 루터교 가정에서 태어남. 9살 때 벌써 어머니께 기도/묵상 방을 달라고 함.
- 25살 때 회심한 후 필립 야곱 스페너를 만나 큰 영향을 받음.
- 독일의 작은 도시에 있는 할레대학교의 교수가 되어 경건주의 본부로 만들어 놓음.

3)진젠도르프 백작과 모라비안 교도들

- 모라비안 공동체의 창시자 진젠도르프는 할레 대학의 프랑케 밑에서 6년간 교육을 받음.
-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나 드레스덴 왕궁에서 일하면서 가톨릭의 핍박을 피해 온 후스파 보헤미안 난민들, 청교도들의 핍박을 피해온 재세례파를 만남. 이들을 위한 피난처를 제공함.
- 1722년 경건공동체인 “모라비안 공동체” 결성
- 1727년 진젠도르프는 공동체의 젊은 자매들의 회심을 놓고 기도함. 영적 부흥 경험.
  이때부터 공동체는 남자24명 여자24명이 매시간 교대로 중보기도를 하기로 헌신함.

4)요한 알브레히트 벵겔

- 당시에 보기 드물게 학문적인 날카로움과 경건성을 겸비한 인물.
  신약성경 연구에 독보적인 존재였고 경건한 주석학자였음.